

초기청소년기 가정 내 학대피해와 가정 외 폭력피해 및 자살시도: 다중폭력피해 관점의 적용*

김 준 범**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 내 학대피해에 노출된 초기청소년의 가정 외 폭력피해와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여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폭력의 예방을 위한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3년 진행한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연구’에서 수집된 횡단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6,308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계층분석 결과 가정 내 학대피해는 위험 수준에 따라 고위험, 저위험의 2개 집단으로 구분되며, 이 중 고위험집단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13.2%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정 내 학대피해 고위험집단일수록 가정 외 폭력피해에 포함되는 모든 유형에의 위험비가 유의미하게 높은 가운데 특히 이웃에 의한 신체 및 정서폭력 위험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위험집단일수록 피해의 중첩을 의미하는 누적 피해 위험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연구모형 검증 결과, 가정 내 학대피해 고위험집단일수록 가정 외 폭력피해 위험 승산비가 2.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가정 내 학대피해 고위험집단일수록 가정 외 폭력피해 및 자살시도 위험비도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체계 내에서의 폭력 피해가 다른 체계에서의 폭력 피해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다중폭력피해(poly-victimization)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를 위시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폭력 예방, 그리고 이로 인한 자살시도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가정 내 학대피해, 가정 외 폭력피해, 다중폭력피해, 자살시도, 초기청소년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3년 진행한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연구’에서 수집된 횡단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woolalra@gmail.com

I. 서 론

아동과 청소년 대상 폭력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폭력 범죄 피해자 중 20세 이하 연령층의 경우 11.7%(25,069명)로 나타나 피해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아동 및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무연수원, 2018). 그리고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을 아우르는 흉악범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2007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6년에는 전체 피해자의 약 29.0%(8,783명)에 육박하였다(법무연수원, 2018).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피해는 가정 내 학대로 시작될 공산이 높다. 이는 대다수의 인간은 출생 이후 가정에서 1차적 사회화를 경험함에 따라 주양육자의 양육태도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에 기인한다. 특히 일방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동기, 더 나아가서는 초기청소년기까지는 보호자와 힘의 불균형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는 폭력 발생의 기본 조건이 된다(Olweus, 1994). 그리고 폭력은 분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진다. 즉, 가정 내 학대피해 청소년일수록 전 생애에 걸쳐 가정 밖에서도 재차 폭력피해를 당하는 피해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Turner et al., 2010). 이는 가정 내에서의 학대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가정 내의 보호력이 낮은 수준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Finkelhor, Turner, Hamby & Ormrod, 2011). 열악한 가정환경은 정서적 박탈, 낮은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낮은 수준의 자기보호력은 비단 가정 내(intra-familiar) 폭력피해뿐만 아니라 가정 외(extra-familiar) 재피해로 이어져 결국 ‘다중폭력피해(poly-victimization)’로 비화될 공산이 높다.

다중폭력피해란 폭력피해를 당한 사람은 타유형 폭력노출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피해의 악순환을 골자로 하며(Finkelhor, Ormrod & Turner, 2007a), 가정 내의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성피해, 이웃으로부터의 폭력노출 등 폭력피해 상황을 다체계적 관점에 근거하여 제시한 개념이다. Finkelhor et al.(2007a)가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이후, 현재까지 다수의 논문에서 검증되고 있다. 그 결과 다중폭력피해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다른 유형 폭력피해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다. 폭력피해 노출정도가 심한 아동 및 청소년기 다중폭력피해자일수록 다른 유형의 폭력피해에도 더욱 취약할 뿐만 아니라(Finkelhor, Ormrod & Turner, 2007b; Mitchell, Segura, Jones & Turner, 2018) 성인이 된 후에도 각종 폭력, 범죄피해에

취약하게 된다(Cyr et al., 2013; Pereda & Gallardo-Pujol, 2015). 이에 따라 가정 내 학대가 심한 집단일수록 가정 외 폭력피해에도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여파는 높은 수준의 심리정서적인 부적응과 자살시도 위험이다. Finkelhor et al.(2007a)는 불안, 우울, 그리고 분노 및 공격성에 있어서 각 개별 폭력피해 유형이 미치는 영향력과 다중폭력피해의 영향력을 비교 검증한 결과, 개별 폭력피해보다 다중폭력피해 자체가 각 심리정서적 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중폭력피해가 단순히 개별 폭력피해가 합산된 개수를 의미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다중폭력피해적 관점에서 폭력피해 위험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 때마다 불안, 트라우마와 같은 내재화 및 품행장애 등의 외현화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Cyr et al., 2013; Finkelhor et al., 2011).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 모두 다중폭력피해 유경험자일수록 내재화, 외현화 증상이 심화되어 자살시도의 위험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히 높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Hooven, Nuris, Logan-Greene & Thompson, 2012; Arseneault,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중폭력피해적 관점에 의거하여 가정 내 학대피해 위험군일수록 가정 외 폭력피해, 그리고 자살시도의 위험이 높다고 가정한다. 또한 가정 환경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초기청소년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외 폭력피해와 자살시도의 위험성 규명함으로써 다중폭력피해적 관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중폭력피해 이론 검증 및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내 학대피해 고위험군일수록 가정 외 폭력피해 위험도 높은가?

둘째, 가정 내 학대피해 고위험군일수록 가정 외 폭력피해와 더불어 자살시도 위험
까지도 모두 높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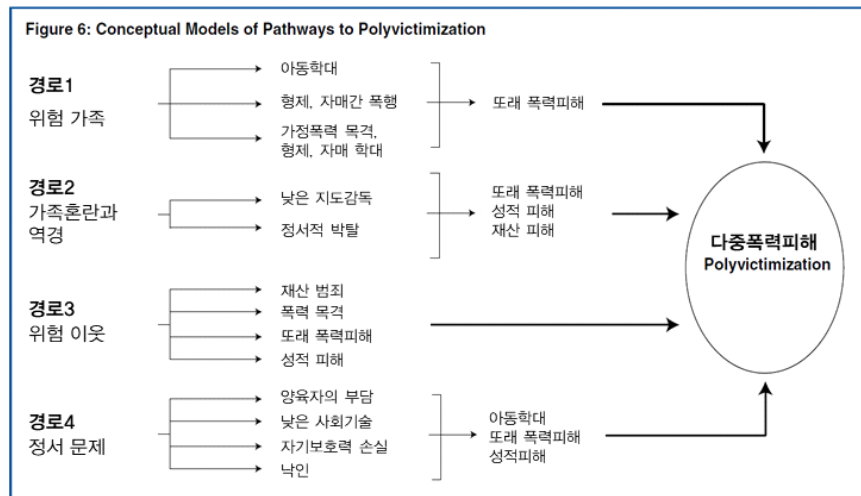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1. 다중폭력피해 관점을 적용한 가정 내 학대피해와 가정 외 폭력피해

1) 가정 내 학대피해와 가정 외 폭력피해의 관계

2018년 발표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에 따르면 2017년 기관에 접수된 사건 총 22,367건을 대상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친부가 42.8%(n=9,562), 친모가 30.5%(n=6,824)로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73.3%이고, 계부모 및 양부모를 합치면 전체 학대 발생의 76.8%(n=17,1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 내 학대피해는 가정 외 폭력피해를 유발할 공산이 높으며, 이는 다중폭력피해(poly-victimization)적 관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다중폭력피해란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학교폭력피해, 성피해 등 다체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피해 노출을 의미한다(Finkelhor et al., 2007a). 미국 내 전체 아동 및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경험한 다중폭력피해 실태를 조사(NatSCEV, The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하고 이를 분석한 Turner et al.(2010)은 한 가지 이상의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은 전체의 66%였고, 이 중 30%는 5가지 이상, 그리고 10%는 11가지 유형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다중폭력피해는 원가족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아동학대는 다중폭력피해의 위험요인이 된다. Finkelhor et al.(2011: 9)는 다중폭력피해에 이르는 경로를 그림 1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한 이론적 틀에 따르면 각 경로는 1)위험 가족, 2)가족 혼란, 역경, 3)위험 이웃, 그리고 4)정서적 문제로 촉발된다고 보고한다. 이중 3)위험 이웃을 제외한 세 가지 경로는 모두 아동 및 청소년의 가족체계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즉, 1)위험 가족은 아동학대, 부모폭력 목격경험이 또래로부터의 폭력피해, 그리고 다중폭력피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2)가족혼란, 역경이 낮은 수준의 감독기능 및 정서적 박탈로 이어져 다중폭력피해로, 그리고 4)정서적 문제는 부모(보호자)의 양육부담, 낮은 사회기술, 손상된 자기보호력(impaired self-protection)으로 이어져 아동학대,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결국 다중폭력피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중폭력피해자 중 아동학대 피해자의 비중은 전체의 53% 이상으로 그렇지 않은 피해자의 아동학대 비중인 14%보다 약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nkelhor et al., 2011). 우리나라에서는 다중폭력피해에 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앞서 살펴본 이론적 근거 및 해외 선행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정 내 학대피해에 노출된 청소년은 가정 외 폭력피해에도 더욱 취약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출처: David Finkelhor, Heather A. Turner, Sherry L. Hamby, & Richard K. Ormrod. Poly-victimization: Children's exposure of multiple types of violence, crime, and abuse. 2011. OJJDP Juvenile Justice Bulletin - NCJ235504 (pgs. 1-1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그림 1. 다중폭력피해의 개념적 모델

2) 초기청소년기의 폭력피해

초기청소년기 폭력피해의 취약성은 시의적 측면과 발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시의적인 측면은 폭력피해의 저연령화와 관련되어 있다. 2007년 전체 형법범죄 피해자의 약 5.1%를 차지하였던 20세 이하 청소년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2016년에는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연수원, 2018). 하지만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부각 된다. 2016년 기준 20세 이하 폭력범죄 피해자는 11.7%(25,069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을 아우르는 흉악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약 29.0%(8,783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세 이하의 피해자도 2007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1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전체 청소년의 약 1.3%인 5만 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초등학교생의 피해 응답률 증가폭이 0.7%로서 같은 기간 대비 중, 고등학생(각 0.2%, 0.1% 증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은 본질적으로 단일체계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피해의 지연영화는 다중폭력피해로 비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발달적 측면에서 가정 내의 학대 경험, 즉 아동학대의 영향이 외부체계에 전이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초기청소년기임에 기인한다. 이 시기는 가정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아동기와 맞닿아 있고, 가정에서 1차적 사회화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학교를 위시한 외부체계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가정 내에서 형성된 상호작용의 패턴이 또래, 교사 등의 유의미한 타자(significant others)에게 전이된다(Bowlby, 1982). 이 때 가정 내에서 학대를 당한 청소년은 신체 손상뿐만 아니라 뇌 발달의 저해, 낮은 수준의 사회성, 인지·정서·행동조절 기능 손상되어(Bremner, 2006; Shaffer et al., 2009) 가정 외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기 쉽다(Erwin, 1993) 이에 따라 가정 외 체계에서 재피해를 당할 공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Finkelhor et al., 2011). 실제로 다중폭력피해자일수록 아동학대 최초 피해연령이 낮다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폭력유형별 최초 피해연령을 분석한 결과(김준범, 최윤희, 2018)에 따르면, 전체 연구대상자의 최초 부모폭력 목격 연령은 평균 10.0세, 부모로부터의 신체학대는 평균 11.2세로 나타나 아동학대가 또래의 따돌림 및 신체폭력(11.5세), 성학대(11.4)세 등 다른 유형의 폭력보다 피해연령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중폭력피해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폭력 목격이 9.8세, 신체학대는 10.8세로 나타나 최초 피해 시기도 일반청소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 내 학대피해를 당한 초기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은 다중폭력피해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2. 가정 외 폭력피해와 자살시도

가정 내 학대피해는 가정 외 폭력피해와 더불어 자살시도에 유의미한 위험요인이 된다(Charak et al., 2016; Hooven et al., 2012). 이는 다중폭력피해는 단일폭력피해보다 심리정서적으로 더 심각한 여파를 초래한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Finkelhor et al., 2007a; Soler et al., 2013). 폭력피해의 여파로서 심각성은 심리정서적 고통의 정도와 지속성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반복된 폭력피해로 인해 고통의 정도, 즉 ‘양’이 가중되는 것은 이동학대로 시작된 폭력피해가 타체계로 전이되어 연쇄적인 폭력피해를 가져오는 일종의 축진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류정희 외, 2016: 167 재인용).

폭력은 타인의 자아를 무력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리하여 언어폭력, 정서학대와 같이 신체폭력보다는 상대적으로 경한 수준의 폭력일지라도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로 임상적 우울 및 불안을 위시한 부정정서 및 부정인지의 가중(Turner et al., 2010; Ford et al., 2010), 트라우마로 인한 부정적 외현화 증상 가중 및 사회적응력 감소(Kretschmar et al., 2017)의 유발기제가 된다. 실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다중폭력피해에 대하여 회고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Hooven et al.(2012)은 아동 및 청소년기 다중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울장애와 같은 기분장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자살시도를 포함한 자살행동의 위험까지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Finkelhor et al.(2011)는 폭력피해 유형을 개수로 환산하여 트라우마 증상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폭력피해 개수가 1개씩 증가할수록 증상 정도가 심해지는 우상향의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다중폭력피해의 절단점(지난 1년간: 6개, 평생: 10개)을 적용하여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역시도 다중폭력피해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증상정도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고, 자살위험도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Charak et al., 2016). 국내의 연구로서 청소년들이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규명하며 한계효과¹⁾를 통해 산출한 김경래, 정진욱(2015)에 따르면 단일유형의 피해보다 3가지 유형의 중복적 피해는 자살생각을 22%높이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1)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실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를 나타냄(김경래, 정진욱, 2015).

이처럼 폭력피해로 인한 다양한 여파 중 사후에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살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살시도의 경우는 자살사망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탓에 취약집단에 대한 조기개입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살생각, 계획, 그리고 시도를 연속 변수화하여 합산한 값 ‘자살행동(suicide behaviors)’이라 조작적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가 대다수이다. 물론 자살생각 및 계획도 그 자체로서 큰 위험요인이나 자살시도는 자살생각과 계획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과 향후 자살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은 바로 자살 시도 유무라는 것(Dulcan, 2016: 573)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살 시도 유경험자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폭력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증상은 자살생각(Bhatta et al., 2014)에 국한되지 않고 자살시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만큼(김준범, 최윤희, 2018; Arserneault, 2017; Charak et al., 2016; Hooven et al., 2012) 가정 내 학대피해가 심한 청소년일수록 가정 외 폭력피해 위험뿐만 아니라 자살시도의 위험도 더욱 클 것이라 가정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이 논문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3년 진행한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연구’에서 수집된 횡단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표본추출은 지역, 학교유형(초, 중), 학교 수 및 학생 수를 이용한 변형비례배분방식을 활용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2013년 6월부터 약 두 달에 걸쳐 총 6,359명(초등학생 3,164명, 중학생 3,19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폭력피해 실태파악을 위해 기술통계에서는 주요변인인 아동학대 피해, 다중폭력피해, 그리고 자살시도에 무응답하거나 결측으로 처리된 케이스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6,308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1) 가정 내 학대피해

가정 내 학대피해는 지난 1년 간 가정 내에서의 부모로부터의 신체학대, 정서학대, 그리고 가정폭력 목격경험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부모님과 관계 척도에서 각각 ‘나는 부모님에게 맞은 적이 많다’, ‘나는 부모님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많다’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의 서술어가 ‘많다’이기 때문에 ‘보통이다(3)’라는 응답은 경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경험유무를 묻는 다른 문항 중 ‘나의 기억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아주 심하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을 추출하여 부모님과의 관계 문항에서 ‘보통이다(3), ‘그렇다(4)’, 그리고 ‘매우 그렇다(5)’라고 응답한 대상을 유경험(1), 그렇지 않은 대상을 무경험(0)으로 조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나의 기억에는 부모님들이 때리고 욕하면서 아주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신 적이 있다’라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이 문항 역시 경험유무를 질문하였기 때문에 ‘있다(1)’와 ‘없다(0)’로 조작하여 사용하였다.

2) 가정 외 폭력피해, 자살시도

연구에서 사용된 가정 외 폭력피해 지표는 7개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김준범, 최윤희(2018)가 다중폭력피해에 관한 선행연구²⁾를 토대로 조작적 정의한 것과 동일한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가정, 학교 교사 및 또래로부터의 직접피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직접피해 경험의 유무를 범주화하여 다중폭력피해를 조작적 정의하였다. 각 범주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는 교사에 의한 신체 및 정서폭력, 또래에 의한 따돌림, 신체폭력, 정서폭력으로 세분화되었고 지역사회는 성학대, 협박, 그리고 이웃에 의한 신체 및 정서폭력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또래에 의한 정서학대 문항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상에서 경험유무를 파악할 수 있

2) Ellonen, N. & Salmi, V., 2011; Ford et al., 2010; Finkelhor, D. et al., 2007 참조.

는 문항(또래 친구와의 관계 문항 중 ‘나는 친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을 활용하여 경험유무로 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7개의 폭력피해 유형을 모두 합산한 후 1가지 이상의 폭력피해를 ‘1’, 그 미만은 ‘0’으로 재코딩하여 ‘가정 외 폭력피해’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한편, 자살시도는 우선적으로 ‘나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의 문항을 활용하여 ‘0=없음’, ‘1=있음’으로 구분하여 유경험자를 구분하였다. 이후, 폭력피해 유경험자 중 자살시도 유경험자만을 추출하여 ‘1’로, 그렇지 않은 다른 인원은 모두 ‘0’으로 구분하여 ‘가정 외 폭력피해 및 자살시도’로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서 성별, 연령, 거주지역, 가정형태, 주관적 경제 수준과 심리정서 요인으로서 심리적 불안(psychological distress) 변인을 투입하였다. 이는 아동학대 고위험집단일수록 다중폭력피해 및 자살시도 위험이 더 높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보다 엄정하게 검증하기 위함과 동시에 우울을 위시한 심리적 불안 자체가 폭력피해의 원인이 된다는 선행연구(Kim & Lee, 2013)를 근거로 통제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적 불안 변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에서 개발한 심리적 불안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자주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나는 최근에 자주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다”, 등 청소년의 심리적 걱정, 우울, 외로움, 분노, 위험, 폭력적 행동 등 총 10개의 항목으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불안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0.889로 나타났다.

표 1

변수 정의 및 비교

	변수	응답범주	비고
독립변인	가정 내 학대피해	잠재계층 0=계층1, 1=계층2	-
종속변인1	가정 외 폭력피해		
	교사의 신체·정서폭력	0=무경험, 1=유경험	모든 유형의 폭력을 합산 후 1개 유형 이상 유경험 ‘1’, 무경험 ‘0’으로 재코딩 후 분석에 사용
	이웃의 신체·정서폭력		
	또래의 따돌림		

	변수	응답범주	비고
	또래의 신체폭력		
	또래의 정서폭력		
	성학대		
	협박		
종속변인2	가정 외 폭력피해와 자살시도	0=무경험, 1=유경험	다중폭력피해와 자살시도의 중복적 유경험 응답에 한하여 '1'로 재코딩하여 분석
통제변인	성별	0=여자 청소년, 1=남자 청소년	-
	연령	9~16	
	거주지역	1=특별/광역시, 2=중소도시, 3=읍면지역	
	가정형태	0=양부모가정, 1=재혼가정, 3=한부모가정, 4=조손가정	
	주관적 경제수준	1=평균 이하, 2=평균, 3=평균 이상	
	심리적 불안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3. 분석방법

그림 2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을 도식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아동학대에 따른 잠재계층을 구분하기 위해 부부폭력 목격 경험, 정서학대 및 신체학대 피해 지표별 응답확률값을 중심으로 잠재계층분석(LCA, 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했다. 잠재계층분석은 사례별 응답패턴에 따라서 사후계층소속 확률을 산출하고, 이 값을 바탕으로 잠재계층을 나눈다. 잠재계층분석은 군집분석과는 달리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편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람중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Lanza et al., 2010: 이상균 그레이스정, 유조안, 2015 재인용). 이후 모형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McFadden's Pseudo $R^{2(3)}$ 을 산출하였다. 분석에는 Mplus 6.0, STATA 1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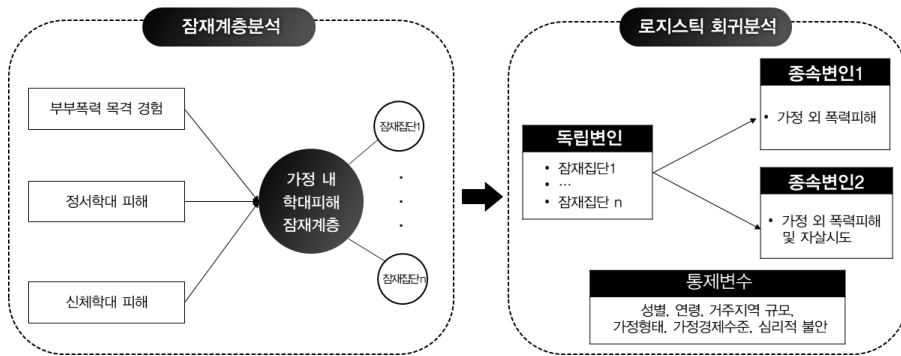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인 기술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인의 기술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51.3%(3,230명), 여자가 48.7%(3,078명)으로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13.3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거주지역규모의 경우 중소도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7.4%(2,991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 및 광역시는 39.8%(2,509명), 그리고 읍면지역은 12.8%(808명)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태의 경우 양부모가정이 90.7%(5,7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조손가정 3.4%(219명), 한부모가정 3.3%(20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은 ‘고’ 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9.2%(3,11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중’ 37.9%(2,393명), 그리고 ‘저’는 12.7%(803명)이었다. 다음으로 연구의 주요변인인 가정 내 학대피해의 경우, 유형별로는 신체학대 피해 유경험자가 전체의 23.3%(1,47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3) 산출식은 $R^2 = 1 - \frac{\ln \hat{L}(M_{full})}{\ln \hat{L}(M_{cept})}$ 임.

M_{full} =Model with predictors, M_{cept} =Model without predictors, $\hat{L}$ =Estimated likelihood

그 다음은 부부폭력 목격경험 15.7%(982명), 정서학대 11.4%(720명)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외 폭력피해 유경험자는 29.6%로 10명 중 3명은 가정 외에서 폭력피해 유경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	3,230	51.3
		여	3,078	48.7
거주지역규모		특별/광역시	2,509	39.8
		중소도시	2,991	47.4
		읍면지역	808	12.8
가정형태		양부모가정(bio)	5,739	90.7
		재혼부모	51	0.8
		한부모가정	203	3.3
		조손가정	219	3.4
		기타 및 결측	96	1.8
가정경제수준		고	3,112	49.2
		중	2,393	37.9
		저	803	12.7
가정 내 학대피해	신체학대	무경험	4,830	76.6
		유경험	1,478	23.3
	정서학대	무경험	5,588	88.6
		유경험	720	11.4
	부부폭력목격	무경험	5,326	84.3
		유경험	982	15.7
가정 외 폭력피해		무경험	4,444	70.4
		유경험	1,864	29.6
자살시도	가정 외 폭력피해 무	무경험	4,321	68.5
		유경험	123	1.9
	가정 외 폭력피해 유	무경험	1,620	25.6
		유경험	244	4.0
연령(M±SD)			13.3(1.7)	
심리적 불안(M±SD)			2.1(0.8)	
총 빈도수			6,308	100.0

2. 가정 내 학대피해의 잠재계층유형 및 가정 외 폭력피해 특성 비교

가정 내 학대피해 고위험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은 신체 및 정서학대, 가정폭력 목격경험에 대한 응답자료를 투입하고, 순차적으로 계층의 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보지수인 BIC값의 경우 3계층모형에서 가장 작았고, 그 다음은 2계층모형, 4계층모형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4계층모형이 가장 높았으나, BLRT 검증결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계층모형이 4계층모형에 비해 더욱 적합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케이스의 세부분류를 확인한 결과 3계층모형에서의 잠재계층1이 전체의 0.001%(12 케이스)만 분류되어 Jung & Wickrama(2008)가 제시한 최소 표본수인 5%가 되지 않아 적절한 할당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지수들과 유의도를 종합한 결과, 2계층모형을 최적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분류된 잠재계층이 각 학대피해 측정 지표별로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잠재계층 1의 경우 부부폭력 목격, 정서학대 및 신체학대에서 잠재계층 2보다 월등히 높은 위험도를 보였으며, 이에 잠재계층 1을 ‘고위험집단’, 잠재계층 2를 ‘저위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잠재계층 모형별 적합도지수 및 2계층 모형의 할당확률 평균값

모형	AIC	BIC	SSABIC	Entropy	BLRT	p
2 계층모형	15579.521	15653.833	15618.878	0.789	1622.483	<.001
3 계층모형	15535.561	15650.406	15596.384	0.866	55.960	<.001
4 계층모형	15542.922	15698.300	15625.122	0.936	4.639	.050
분류율	잠재계층 수					
	2개(n, %)		3개(n, %)		4개(n, %)	
잠재계층1	5484(86.8)		12(0.001)		660(10.4)	
잠재계층2	824(13.2)		5506(86.8)		5373(84.6)	
잠재계층3			828(13.2)		302(4.7)	
잠재계층4					10(0.001)	

주: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SSABIC=(Sample Size Adjusted)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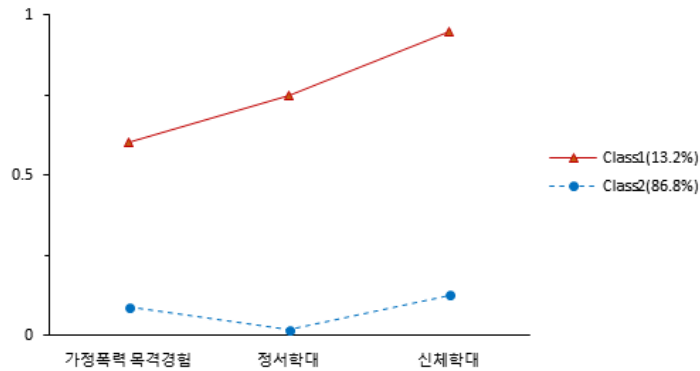


그림 3. 아동학대 피해의 잠재계층유형별 지표반응 패턴

잠재계층별 가정 외 폭력피해의 위험비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반적으로 저위험집단을 준거집단(reference)으로 두었을 때 고위험집단은 폭력피해 유형 및 개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폭력피해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가장 높은 승산비를 보인 유형은 ‘이웃폭력피해’였으며, 저위험집단에 비해 고위험집단은 약 4.5배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OR=4.53, p<.001$). 다음으로는 ‘학교 신체폭력피해’가 3.85배($OR=3.85, p<.001$), ‘협박피해’($OR=3.63, p<.001$) 3.8배, ‘학교 정서피해’ 3.41배($OR=3.41, p<.001$)로 나타났다. 선생님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승산도 약 3.17배($OR=3.17, p<.001$) 높을 뿐만 아니라 ‘성적피해’도 약 2.78배($OR=2.78, p<.001$)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폭력피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 개수로만 기준을 두어 분석한 결과 ‘1개 피해’를 더 당할 승산은 3.3배($OR=3.35, p<.001$), ‘2개 피해’는 5.32배($OR=5.32, p<.001$), ‘3개 피해’는 6.8배($OR=6.88, p<.001$), 그리고 ‘4개 피해 이상’은 14.14배($OR=14.14, p<.001$)로 나타나 개수가 증가할수록 승산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잠재계층에 따른 가정 외 폭력피해 실태와 유형 및 개수별 위험도 승산비

가정 외 폭력피해			저위험집단(n=5,484)	고위험집단(n=824)
유형	이웃 신체 및 정서폭력	유경험n (%)	221(4.0)	133(15.9)
		OR (95% CI)	1.00(referent)	4.53(3.6-5.7)***
	또래 신체폭력	유경험n (%)	118(2.1)	65(7.8)
		OR (95% CI)	1.00(referent)	3.85(2.8-5.3)***
	협박피해	유경험n (%)	99(1.8)	52(6.2)
		OR (95% CI)	1.00(referent)	3.63(2.6-5.1)***
	또래 정서	유경험n (%)	730(13.2)	285(34.1)
		OR (95% CI)	1.00(referent)	3.41(2.9-4.0)***
	또래 따돌림	유경험n (%)	443(8.0)	185(22.1)
		OR (95% CI)	1.00(referent)	3.25(2.7-3.9)***
	교사 신체 및 정서폭력	유경험n (%)	282(5.1)	122(14.6)
		OR (95% CI)	1.00(referent)	3.17(2.5-4.0)***
	성적피해	유경험n (%)	108(2.0)	44(5.3)
		OR (95% CI)	1.00(referent)	2.78(1.9-3.9)***
개수	1개 피해 ⁴⁾	유경험 n(%)	943(17.1)	262(31.3)
		OR (95% CI)	1.00(referent)	3.35(2.8-4.0)***
	2개 피해	유경험n (%)	304(0.05)	134(16.0)
		OR (95% CI)	1.00(referent)	5.32(4.2-6.7)***
	3개 피해	유경험n (%)	100(0.02)	57(6.8)
		OR (95% CI)	1.00(referent)	6.88(4.8-9.7)***
	4개 피해 이상	유경험n (%)	35(0.01)	41(4.9)
		OR (95% CI)	1.00(referent)	14.14(8.8-22.5)***

OR=Odds Ratio, 95% CI=Confidential Interval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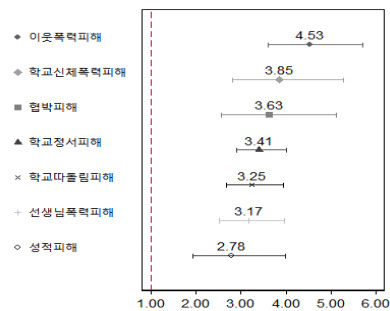


그림 4. 고위험집단의 폭력피해 유형별 위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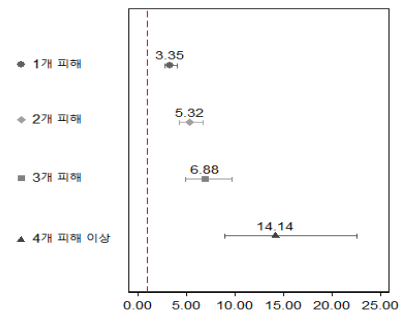


그림 5. 고위험집단의 폭력피해 개수별 위험비

4) '1개 피해'는 무피해(0)과 어떤 유형이든 1개 피해만 있는 경우(1)로 변환하고 그 외(2개 이상 피해, 결측 등)는 더미화하였고, 2, 3, 4가지 이상 피해도 동일하게 조작하여 산출한 결과임.

3. 가정 내 학대피해 잠재계층유형에 따른 가정 외 폭력피해 및 자살시도 위험비 검증

연구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로그우도를 분석한 결과, 두 모형 모두 모든 예측변인군이 투입되지 않은 모형($Model_{null} = Model\ 1, 3$)보다 투입된 모형($Model_{full} = 2, 4$)의 로그우도가 작았다. 또한 예측변인군이 종속변인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도비검정(likelihood ratio test, LR test)을 실시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0) = 115.64, 101.51, p < .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유사(Pseudo) R^2 의 최종 값은 각각 .059, .088으로 설명력이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잠재계층유형에 따른 가정 외 폭력피해 위험을 검증한 결과 고위험집단일수록 4.3배($OR=4.3, p < .00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심리적불안을 통제한 모형인 Model 2에서도 고위험집단일수록 가정 외 폭력피해 위험은 2.8배($OR=2.8, p < .001$),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학대피해에 따라 가정 외 폭력피해 위험이 가중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여자청소년일수록, 그리고 대도시에 비해서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가정 외 폭력피해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태는 양부모가정보다는 재혼부모가정의 승산이 2.4배($OR=2.4, p < .01$), 한부모가정 1.7배($OR=1.7, p < .001$), 조손가정 1.5배($OR=1.5, p < .0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은 ‘고’ 집단에 비해 ‘중’ 집단은 적은 반면, ‘저’ 집단은 1.2배($OR=1.2, p < .01$)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불안은 2.1배($OR=2.1, p < .001$)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정 외 폭력피해 위험과 자살시도 위험의 경우 고위험집단일수록 가정 외 폭력피해 위험 및 자살시도는 4.7배($OR=4.7, p < .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심리적불안을 통제한 이후에도 고위험집단일수록 가정 외 폭력피해 위험 및 자살시도의 승산은 2.1배($OR=2.1, p < .001$)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위험집단일수록 가정 외 폭력피해 위험, 그리고 자살시도의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여자청소년일수록 1.7배($OR=1.7, p < .00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경제수준이 ‘고’ 집단에 비해 ‘중’ 집단일 경우 승산이 0.6배($OR=0.6, p < .01$)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리적불안의 승산은 4.1배($OR=4.1, p < .001$)

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5

가정 내 학대피해 잠재계층에 따른 가정 외 폭력피해 및 자살시도 위험비 검증

변수	종속변수: 가정 외 폭력피해		종속변수: 가정 외 폭력피해 및 자살시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dds ratio(95% Confidence Interval)			
상수항	0.3(0.3-0.3)***	0.1(0.1-0.2)***	0.0(0.0-0.0)***	0.0(0.0-0.0)***
잠재계층				
저위험집단	1.0(referent)	1.0(referent)	1.0(referent)	1.0(referent)
고위험집단	4.3(3.7-5.0)***	2.8(2.4-3.6)***	4.7(3.6-6.1)***	2.1(1.6-2.9)***
성별				
남		1.0(referent)		1.0(referent)
여		0.8(0.7-0.9)***		1.7(1.3-2.4)***
연령		0.9(0.9-1.0)		1.0(0.9-1.2)
거주지역				
대도시		1.0(referent)		1.0(referent)
중소도시		0.8(0.7-0.9)*		0.9(0.7-1.3)
읍면지역		0.8(0.7-1.0)		1.1(0.7-1.7)
가정형태				
양부모가정		1.0(referent)		1.0(referent)
재혼부모		2.4(1.3-4.3)**		1.6(0.5-4.9)
한부모가정		1.7(1.3-2.3)***		1.3(0.7-2.6)
조손가정		1.5(1.1-2.0)**		0.9(0.4-1.9)
가정경제수준				
고		1.0(referent)		1.0(referent)
중		0.8(0.7-0.9)**		0.6(0.4-0.8)**
저		1.2(1.0-1.5)**		0.9(0.6-1.3)
심리적불안		2.1(1.9-2.3)***		4.06(3.3-4.8)***
Log likelihood	-3649.302	-3591.482	-980.257	-929.500
LR test	chi2(10)=115.64***		chi2(10)=101.51***	
Pseudo R^2	.046	.059	.049	.088
N	6,308		6,308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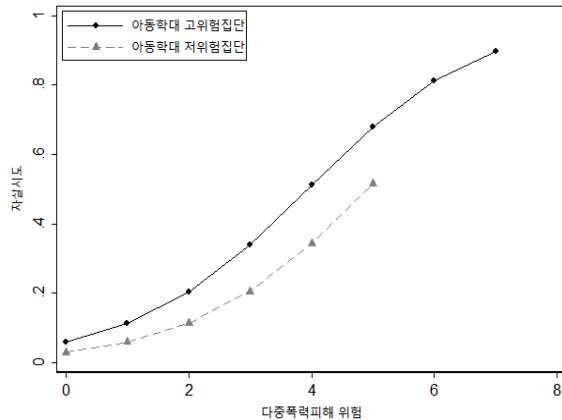


그림 6. 집단별 가정 외 폭력피해 위험에 따른 자살시도 예측값 도식

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청소년이 경험한 가정 내 학대피해가 이후의 가정 외 폭력 피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폭력예방을 위한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내 학대피해 고위험집단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13.2%(836명)으로 나타나 초기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은 가정 내 학대피해 노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 학대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 학대를 당한 청소년일수록 타 유형 폭력피해에 노출될 승산이 2.8배 높은 것으로 검증된 바, 주양육자에 의해 폭력피해를 당한 76.9%의 청소년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대 발생 자체가 가정의 보호력에 대한 악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가해자에 의한 폭력피해에도 노출될 공산이 높다는 것(Ellonen & Salmi, 2011; Mitchell et al., 2018)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가정 내 학대피해 고위험집단일수록 가정 외 폭력피해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정 외 폭력피해 변인으로는 이웃, 교사, 또래 등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 및 지역사회체계의 주요한 주체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아동학대 고위험집단일수록 이웃에 의한 폭력피해의 승산이 4.53배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피해 개수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고위험집단일수록 4개 이상의 피해를 경험할 승산이 무려 14.14배로 검증되었으며, 1개 피해도 3.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에 노출될수록 다른 체계에서도 폭력피해를 경험할 공산이 높다는 다중폭력피해적 관점(Finkelhor et al., 2011)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가정 내 학대피해 고위험집단일수록 가정 외 폭력피해 및 자살시도라는 중복 경험의 위험비도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피해를 받은 청소년일수록 자살시도 위험이 높다는 선행연구(Finkelhor et al., 2007b)와 다중폭력피해와 자살시도의 정적인 관계를 규명한 연구(Hooven et al., 2012; Charak et al., 201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정 내 학대피해 예방은 대승적 차원에서 타유형의 폭력피해에 대한 노출을 줄임과 동시에 자살예방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성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접수된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보호가 80.9%(n=18,10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가족 보존의 가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 2018: 136)’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를 전제한다면, 학대 사안에 대한 정밀한 사정 및 사후조치에 있어서의 적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2017년의 경우 사후조치로는 지속관찰이 전체의 62.9%(n=14,075)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고소·고발·사건처리가 32.6%(n=7,297), 아동과의 분리 2.2%(n=484) 등으로 나타났다. 2012년 고소·고발·사건처리 및 아동과의 분리가 전체의 약 13.3%였던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사후조치에 관한 적극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재학대 사례 비율이 전체의 9.7%(n=2,1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접수사안 10건 중 1건 꼴로 사후조치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가족 보존의 가치에 기반을 둔 개입도 중요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에 가치를 둔 개입이 더욱 시급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학대 사안과 관련하여 다중폭력적 관점에 의거한 종합적인 사정이 필요하다. 부모 외의 관계에서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체계를 아울러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양육자의 학대 등과 같은 앞선 보고서에서 발표한 학대행위자로서의 ‘부모’가 76.9%라는 것은, 행위자의 23.1%는 친인척, 교원, 학원강사, 이웃 등을 의미하고, 이는 다체계적인 관점에 의거하여 다중폭력피해 발생에 대한 초기사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뜻한다.

또한 자살위험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검증된 폭력피해와 관련하여 다중폭력피해적 관점을 적용한 사정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교육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2012년도 이래로 전국 모든 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온 기초정신건강데이터로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살 위기군을 조기선별하여 이들에 대한 조기개입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17). 이처럼 선별검사 체계를 도입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WHO(2012)에서도 자살예방 핵심전략으로 집계시스템의 개선을 주요한 과제로 지적한 점을 감안할 때(WHO, 2012), 매우 유의미한 접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 문항을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면,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높이는 요인에 대한 사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현재 검사지는 정신의학적 진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정서 및 위험행동에 대한 문항⁵⁾으로만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청소년 자살과 아동학대를 위시한 가정환경적인 문제가 상호 정적인 연관이 있다는 수많은 실증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정문항은 없는 실정이고, 또한 절차 역시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불성실한 응답이 발생할 공산이 매우 높다(중앙일보, 201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심리·정서적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아동학대 고위험집단일수록 다중폭력피해뿐만 아니라 자살시도의 위험까지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바, 아동학대,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내의 폭력피해에 대한 폭넓은 사정은 청소년 자살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폭력피해에 관한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회고적 방식을 이용한 자가보고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정짓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또한 폭력피해에 관한 응답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응답은 피해자가 하지 않을 수

5) 문항 예시: (지난 3개월 간) ‘기발한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듣는다’, ‘나는 구체적으로 자살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등

있다는 선행연구(황지태, 2010)를 감안하였을 때 응답자 기억의 오류로 인해 내용이 축소 내지는 과장된 응답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에 폭력피해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척도 상의 제한으로 인해 개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중폭력피해 자체를 다루지는 못하고,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구성된 개념을 아울러 가정 외 폭력피해를 다루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척도의 한계로 인해 가정 내 학대피해를 측정하는 변인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그리고 가정폭력 목격경험이라는 세 가지 유형에 국한되었다. 이에 가정 내 학대피해에 대한 다양한 역동을 포괄하여 잠재계층분석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가정 내 학대피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 신체 및 정서학대의 세부적 유형, 그리고 방임 유형(물리적, 의료적, 교육적 등) 등을 포괄하는 세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다중폭력피해적 관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7). **2017년 학생자살 예방대책 시행계획**. 세종: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김경래, 정진욱 (2015).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자살생각 유발경로와 한계효과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포럼**, 220, 81-101.
- 김준범, 최윤희 (2018). 초기청소년기 다중폭력피해자의 자살시도에 관한 연구: 심리적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6(1), 121-149.
- 법무연수원 (2018). **범죄백서**. 진천: 법무연수원.
- 류정희, 이주연, 송아영, 이근영, 이미진 (2016).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연구보고서 2016-32).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앙일보 (2017.19.15). **극단 선택 초중고 10명 중 8명 꼴로 정부 특성검사론 '정상'**. <https://news.joins.com/article/21938469>에서 2019년 2월 24일 인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황지태 (2010).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2008년도 주요범죄 압수 추정. **형사정책연구**, 83, 7-51.
- Arseneault, L. (2017). The long-term impact of bullying victimization on mental health. *World psychiatry*, 16(1), 27-28. doi: 10.1002/wps.20399
- Bhatta, M. P., Jefferis, E., Kavadas, A., Alemagno, S. A., & Shaffer-King, P. (2014). Suicidal behaviors among adolescents in juvenile detention: Role of adverse life experiences. *PloS one*, 9(2), e89408. doi:10.1371/journal.pone.0089408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doi:10.1111/j.1939-0025.1982.tb01456.x
- Bremner, J. D. (2006). Traumatic stress: Effects on the brain.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8(4), 445-461.
- Charak, R., Byllesby, B. M., Roley, M. E., Claycomb, M. A., Durham, T. A., Ross, J., & Elhai, J. D. (2016). Latent classes of childhood poly-victimization and associations with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 trauma victims:

- Moderating role of anger. *Child abuse & neglect*, 62, 19-28. doi:10.1016/j.chiabu.2016.10.010
- Cyr, K., Chamberland, C., Clément, M. È., Lessard, G., Wemmers, J. A., Collin-Vézina, D., & Damant, D. (2013). Polyvictimization and victimization of children and youth: Results from a populational survey. *Child Abuse & Neglect*, 37(10), 814-820. doi:10.1016/j.chiabu.2013.03.009
- Dulcan, K. M. (2015). *Dulcan's textbook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nd ed.). Washington: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doi:10.1176/appi.books.9781615370306
- Ellonen, N., & Salmi, V. (2011). Poly-victimization as a life condition: Correlates of poly-victimization among Finnish children.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12(01), 20-44. doi:10.1080/14043858.2011.561621
- Erwin, P. (1993).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Routledge.
- Finkelhor, D., Ormrod, R. K., & Turner, H. A. (2007a). Poly-victimization: A neglected component in child 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31(1), 7-26. doi:10.1016/j.chiabu.2006.06.008
- Finkelhor, D., Ormrod, R. K., & Turner, H. A. (2007b). Re-victimization patterns in a national longitudi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Child abuse & neglect*, 31(5), 479-502. doi:10.1016/j.chiabu.2006.03.012
- Finkelhor, D., Turner, H., Hamby, S. L., & Ormrod, R. (2011). *Polyvictimization: Children's Exposure to Multiple Types of Violence, Crime, and Abuse*. OJJDP Juvenile Justice Bulletin-NCJ235504. 1-1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Ford, J. D., Elhai, J. D., Connor, D. F., & Frueh, B. C. (2010). Poly-victimization and risk of posttraumatic, depressive,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nd involvement in delinquency in a national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6(6), 545-552. doi:10.1016/j.jadohealth. 2009.11.212
- Hooven, C., Nurius, P. S., Logan-Greene, P., & Thompson, E. A. (2012).

- Childhood violence exposure: Cumulative and specific effects on adult mental health. *Journal of Family Violence*, 27, 511-522. doi:10.1007/s10896-012-9438-0
- Jeff, M. K., Krystel, T., Fredrick, B., & Daniel, J. F. (2017). patterns of poly-victimization in a sample of at-risk youth. *Journal of Child Adolescents Trauma*, 10, 363-375. doi:10.1007/s40653-016-0109-9
- Kim, J., & Lee, J. (2013). Prospective study on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depression among women in Korea. *Social Science & Medicine*, 99, 42-48. doi:10.1016/j.socscimed. 2013.10.014
- Mitchell, K. J., Segura, A., Jones, L. M., & Turner, H. A. (2018). Poly-victimization and peer harassment involvement in a technological worl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3(5), 762-788. doi:10.1177/0886260517744846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7), 1171-1190. doi:10.1111/j.1469-7610.1994.tb01229.x
- Pereda, N., & Gallardo-Pujol, D. (2014). One hit makes the difference: The role of polyvictimization in childhood in lifetime revictimization on a southern European sample. *Violence and Victims*, 29(2), 217-231. doi:10.1891/0886-6708.VV-D-12-00061R1
- Shaffer, A., Yates, T. M., & Egeland, B. R. (2009). The relation of emotional maltreatment to early adolescent competence: Developmental processes in a prospective study. *Child Abuse & Neglect*, 33(1), 36-44. doi:10.1016/j.chiabu. 2008.12.005
- Soler, L., Kirchner, T., Paretilla, C., & Forns, M. (2013). Impact of poly-victimization on mental health: The mediator and/or moderator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13), 2695-2712. doi:10.1177/0886260513487989
- Turner, H. A., Finkelhor, D., & Ormrod, R. (2006). The effect of lifetime

- victimization on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science & medicine*, 62(1), 13-27. doi:10.1016/j.socscimed. 2005.05.030
- Turner, H. A., Finkelhor, D., & Ormrod, R. (2010). Poly-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8(3), 323-330. doi:10.1016/j.amepre.2009.11.012
- Turner, H. A., Finkelhor, D., Shattuck, A., & Hamby, S. (2012). Recent victimization exposure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6(12), 1149-1154. doi:10.1001/archpediatrics.2012.1549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Public health action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who.int/iris/handle/10665/75166>

ABSTRACT

Intra-and extra-familial violence victimizat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early adolescents: A poly-victimization perspective

Kim, Joonbeom*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arly adolescents' risk of extra-familial violence victimization (EFVV) with a focus on those subjects with a high risk group of experiencing intra-familial violence victimization (IFVV). Cross-sectional data from 6,321 adolescents were obtain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2013.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latent class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conducted utilizing Mplus 6.0, and Stata 13.0.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wo mutually exclusive IFVV profiles (latent classes) were identified, and 13.2% of participants were characterized as having a high likelihood of IFVV. Second, IFVV was more vulnerable to be exposed to the number as well as type of victimization. Third, IFVV was associated with a greater risk of EFVV and suicide attempts as well.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tical implications for mitigating risk of violence towards early adolescents and suicide were discussed.

Key Words: intra-familial violence victimization, extra-familial violence victimization, poly-victimization, suicide attempts

투고일: 2019. 3. 8, 심사일: 2019. 5. 3, 심사완료일: 2019. 5. 15

* Yonsei university,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social welfare policy, woolalra@gmail.com